

가을산에 나는 독버섯



▲노란다발 (구토·마비·시각장애)



▲두염먹물버섯 (마비·혈압저하·발한)



▲붉은시슴뿔버섯 (구토·설사·발열)



▲화경버섯 (통증·메스꺼움)



▲큰주머니광대버섯 (위장·신경 중독)



▲갈황색미치광이버섯 (환각·환시 증세)

가을 산행 '독버섯 조심'

식용과 구분 어려워 절대 먹지 말아야

가을산행을 하면서 산속에 자란 버섯을 따는 등산객들이 많다. 하지만 가을철 산에 나는 버섯 중엔 맹독을 가진 종류가 많아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식용버섯과 독버섯의 모양이 비슷해 일반인이 쉽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 식용인 느타리와 독버섯인 화경버섯, 곰보버섯과 마귀곰보버섯, 찌리버섯과 노랑찌리버섯, 송이와 담갈색송이 등은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다.

국내에 자생하는 야생버섯은 1천550여 종, 식용과 약용버섯은 400여 종(26%)이고, 독버섯은 160종(10%), 그리고 나머지 990여 종(64%)은 식용인지 독버섯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잘못 알려진 상식도 위험을 초래한다. 즉 ▲색깔이나 모양이 화려하지 않거나 벌레가 먹은 흔적이 있으면 독버섯이 아니다 ▲끓이거나 소금에 절이면 독이 사라진다 ▲버섯 독은 은수저를 검게 변하게 한다 등 '독버섯 구별법'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식용버섯인 송이·표고·무례기·젓고리·들사리·목이·송로·짜리·달갈·매운·갓·느타리·잎풀·희목이·피꼬리·늑이·괘나무·맛·비늘·젓·기와·노루궁뎅이버섯 등이 대표적으로 가을이 제철이다.

독버섯의 증상은 식중독과 비슷하다. 야생버섯을 먹은 후 속이 메스껍고 구토·설사·경련 등의 증세가 보이면 먹은 것을 토해내고 곧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또 종류에 따라 독소물질과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먹은 버섯을 병원에 가지고 가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다.

하지만 광대버섯과(개나리광대·독우산광대·흰광대 등)·화경·노란다발·외대·파리·땀·독갈매기·미치광이버섯 등 독버섯도 단풍철에 가을 내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광주를 ‘광아트 산업’ 선도도시로”

2007 광주전략산업 수립 보고회
광산업 + 문화예술 ‘신산업’ 육성
문화수도 조성 핵심적 역할 할 것

광주를 ‘광아트(Light + Art) 산업’ 선도도시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 전략산업기획단은 최근 열린 ‘2007년도 광주전략산업 수립을 위한 산업정책연구회 중간보고회’에서 광주를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광산업과 지역의 문화예술을 접목한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아트 산업은 경관 조명 등을 통해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인 도심 리모델링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예술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략산업기획단에 따르면 시가 추진 중인 광 관련 사업인 ▲광엑스포(2009년 10월) ▲빛의 축제(2009년

10월, 시 전역에서 레이저 영상쇼) ▲어동산 관광단지(빛과 예술의 테마공원) ▲광주천 디자인 조성사업 ▲야간경관 조명사업(금남로, 광주천 일대) 등을 광아트산업 선도도시 조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략산업기획단은 광아트 선도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로 ‘도심활성화’ 사업을 제시했다. 이 사업은 광주시의 상징거리인 금남로

를 문화적으로 재구성할 경우 구도심 활성화 및 아시아문화전당과 조화를 꾀 배치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 사업은 금남로의 보행공간 재구성을 기본으로, 아시아문화전당 건물과 금남로 가로변에 위치한 건물 전면 LED로 단장해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개념이다. 금남로는 차선을 줄여 보행공간을 넓히고 동시에 가로등·신호등·버스정

류장 등 가로변의 모든 시설에 LED 작업을 추가하는 프로젝트다.

이외 광주전변을 포함해 인근 사직공원 및 광주공원, 삼부지구 공원으로 이어지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 각종 LED시설과 휴식시설을 확충해 관광자원화하고 광주의 주요 관문 및 텔레이트 등에도 광주를 알릴 수 있는 이미지화 작업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문화중심도시사업, 비엔날레 등과 시의 주력산업인 광산업을 융합할 경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도시의 이미지와 산업적 가치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광아트 산업과 같은 새로운 산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외국인 관광객이든
인큐베이터 운영

광주시는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효율적인 관광 안내 기반 구축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든 인큐베이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영어·일어·중국어 등 어학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5개월간 관광 가이드 전문교육과 인턴과정(5개월)을 제공, 전문적인 외국인 관광가이드로 육성해 현장에 투입하는 제도다.

시는 매년 2억원의 시비를 들여 2010년까지 100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로 우선 내년 중 30명을 선발, 지역 관광·역사·문화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시킬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공사

직원 34명 공채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오형원)가 내년 초 1호선 완전개통을 앞두고 신규 직원을 공개 채용한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21일 “1호선 완전개통에 따라 그동안 결원 15명을 포함해 기관사 19명 등 34명을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

신규 채용은 전기차·신호차·차량각각 2명(장애인 1명씩 포함)과 설비직 1명, 승무직 26명이다.

응시자격은 공사 인사규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20세~28세까지(승무직은 20세 이상)의 주·야간 교대(교번) 근무가 가능한 남녀이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이며, 필기시험은 다음달 10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필기시험 과목은 일반상식과 영어가 필수이며, 각 직류별 선택과목 1 과목을 치르게 된다.

합격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거쳐 다음달 21일 최종 통보한다. 단 승무직은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으로 대체한다.

시험공고문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www.gwangjusbway.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은 공사 총무인사팀(062-604-80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의병장 이세환·이완금 장군 위패 봉안

지난 20일 광주시 동구 운림동 충의사(忠義祠)에서 열린 임진왜란 의병장 이세환·이완금 장군의 위패(位牌) 봉안식(奉安式). 광산 이씨 후손 300여 명은 이날 행주대첩과 이치대첩에서 왜적을 무찌른 사촌형제 의병장인 두 장군의 충성심을 기렸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서구청, 지방혁신 경진대회 대통령상

광주시는 행자부장관상

광주시 서구청이 지난 19일 행정자치부 주최로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2007년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고객만족분야에서 서구의 ‘비즈니스 365일 24시간 업무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이 최우수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서구청엔 대통령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로 수억원대의 상사업비를 오는 11월 중에 지원받게 된다.

서구청은 지난 3월 자치단체 최 초로 ‘365일 민원봉사실’을 삼부지구

민원업무를 주말과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지원시스템을 구축,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전주원 서구청장은 “구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시스템의 지속적인 보완 및 발전을 통해 명품 혁신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행사장에 광소재(LED)를 이용한 혁신전시홍보관을 설치, 구성과 홍보 면에서 높은 점수를 인정받고 ‘행정자치부장관상’과 함께 2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김치축제 폐막...관람객 45만 '성황'

‘김치는 문화다’는 주제로 광주 중외공원 일원에서 지난 17일 막을 올린 ‘2007 광주김치축제’가 21일 폐막했다.

(인터뷰 20면)

올해로 14회를 맞은 광주김치축제는 국내외 관람객 45만 명이 다녀가는 성황을 이뤘으며, 처음 시도한 문화축제로의 발상 전환이 일단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이날 오후 5시부터 메인무대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된 폐막행사는 ‘우리 김치 세계로, 세계가 광주로’ ‘김치는 미래다’는 주제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린 대동 한마당을 끝으로 5 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이번 축제에는 해외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참여한 중국의 심양시 등 중국 7개 지역을 비롯해 일본·미국·인도네시아·이탈리아 등의 단체 관

객과 다수의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농특산물 거리에 위치한 37개 부스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품목을 분산 배치해 관람이 불편했고, 중국 관람객을 위한 통역요원 부족과 광주 범미거리의 지나친 상업성 등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또 김치담그기 체험장 등 관람객 참여가 필수인 행사의 참가자 부족도 목의 티였다.

◇수상자 명단 ▲대통령상=심경희(주)오식식품 ▲최우수상=박영숙, 유선영, 서주성, 유계안 ▲우수상=오명희, 박정미, 박수지, 김시영, 강영은, 최근자, 이상숙, 김현선 ▲장려상=박희순, 김형숙, 김문자, 위지환, 임완진, 오명진, 황현덕, 정미경, 박민영, 김순옥, 임주연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생활안내 신고 상담 table with various services and phone numbers

2007 국민민속 국향대명전 poster with large calligraphy and festival details